



16면

떠나고 싶은 봄
익산의 가족단위 산책코스로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음 2월 17일) 제274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쿠팡, 완주에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

전북도·완주군과 대규모 투자 협약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1300억 투입, 2024년 완공 목표
빅데이터 활용 배송정보 제공으로 산업 동반 성장 기대

대한민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하나인 '쿠팡'이 전북에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도청 회의실에서 쿠팡(주)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쿠팡(주)와 전북도, 완주군은 완주에 첨단물류센터를 짓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쿠팡(주)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1.30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물류센터를 신설하고, 전북도와 완주군은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쿠팡(주)은 아시아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 중 하나로,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묻게 될 때까지 고객 삶의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특히,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을 통해 생필품과 공산품은 물론, 신선도가 중요한 신선식품까지도 고객에게 빠

게 배송하고 있다.

또한,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플레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쿠팡(주)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물류 및 배송의 빠른 대응을 위해 전북의 거점 확보를 계획하고,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1.300억 원)에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

쿠팡(주) 물류거점이 전북에 건설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기차를 활용한 배송, 태양광발전 및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통한 충전 및 물류시설 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한 배송정보 제공 등으로 다양한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사업(5개 기업·4,220억 원 투자·신규 고용 1,700명)의 참여기업인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등은 쿠팡의 신규 배송차량 수요에 따른 전기 상용차 생산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완주에 새로 설립되는 쿠팡(주) 물류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박대준 (주)쿠팡 대표이사, 박성일 완주군수가 26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쿠팡(주)·전라북도·완주군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터는 연면적 2만평 규모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착공에 들어간다.

쿠팡(주)은 투자를 결정한 이유로 중남부권의 허브역할과 호남고속도로 익산IC, 익산 KTX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박대준 쿠팡(주) 인사입부분 대표는 "전북도, 완주군은 물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 노력

해 주신 덕분에 신규 물류센터를 조성해 쿠팡의 고객들에게 더 나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욕증시 상장을 통해 유치한 글로벌 자금으로 전북 완주군에 물류센터를 건립해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 거점

에 투자를 확대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쿠팡(주)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상거래 소매 기업이며, 이번 투자로 우리 지역에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북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호상 기자

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정부 조치 따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1월 중순부터 10주째 300~400명대 환자 발생으로 유행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예외 적용은 유지하고, 유흥시설은 수도권만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한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4월 4일까지)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방침대로 원안을 수용해 1.5단계를 2주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와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한다.

일반 도민도 무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에 관계 없이 의심이 되면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집단 면역체계를 위한 고위험군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군별 백신접종센터 개소 준비를 지속한다.

전주 3월 31일, 군산·정읍·남원 4월 1일, 익산·진안·고창 4월 15일 개소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비전 선포

전북도, '대도약 정책협의체' 상반기 정기 회의 개최
도농상생·그린에너지·먹거리 등 5대 전환분야 선정

미래성장을 위한 신산업의 필요성과 기후위기, 코로나19 문제 대두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을 미래 발전 전략으로 삼은 전북도가 본격적인 논의의 첫 장을 열었다. <관련사진 3면>

도는 지난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체'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과 전환 프로젝트 등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규 민간위원장

등 정책협의체 위원 30여 명이 온·오프라인 회의로 참여해 생태문명 시대의 개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5대 선분야와 구체적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도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 전환의 방향을 정하고, 정책진화적 관점에서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태문명을 선도하기 위해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정정전북 ▲도

농상생 ▲그린에너지 ▲생활 인프라 ▲먹거리 등 5대 전환분야로 선정했다.

전북도는 '생태문명 전환'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총 22개 사업(1조 8,378억 원)을 발굴했으며, 올해 예산이 확보된 11개 사업(1,371억 원)을 시범사업으로 관리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중점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는 ▲모두가 누리는 생명의 숲 조성 ▲초록여행지로 어디서든 즐기는 청정전북 ▲도농융합상생 생생마을 플러스 추진 ▲도시에 꽃피는 농업공간 조성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등이 있다. /유호상 기자

미얀마 국민 돕기, 시민사회와 연대

전주시, 모금 운동 추진
시의회도 결의안 채택



전주시는 군부 쿠데타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돕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과 연대해 모금운동에 나서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자생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연대를 구성하고 미얀마 지지 모금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5일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군부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김승수 시장은 "5·18 민주화운동 독재와 군부세력에 맞서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쟁취해왔기에 그 숭고한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력해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시의회는 인류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아웅산 수처 국가 고문을 비롯한 정치적 및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윤상기자

GIMJE CITY

경제도약, 정임으로 김제

지속 발전 가능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